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



노 희 진 | 자본시장연구원 정책제도실장 선임연구위원 | hjnoh@kcmi.re.kr

## 1. 서론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사회책임 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압축성장을 위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도, 사회적으로 묵인해 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부적절한 경영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와 경영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CSR에 관한 최초의 학술적 논쟁은 경영자는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닌다는 주장을 한 콜롬비아 대학의 Adolf A. Berle 교수와 경영자는 보다 넓은 범위의 책임을 지닌다는 하버드 대학의 E. Merrick Dodd 교수에 의하여 1930년대에 이미 이루어졌다.<sup>1)</sup> Dodd 교수는 현대 대기업은 근원적으로 법에 의해 허가되고 장려되므로 경영자는 주주에 대하여 경제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진다고 주장하여, 기업의 CSR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만들었다.

주주중심주의(shareholder primacy)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여전히 동의하지 않지만, Berle 교수는 Dodd 교수의 의견을 지지하며 논쟁은 해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보수적 정치경제학자인 Milton Friedman은 1970년에 발표한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라는 글에서 오염감소나 소수 약자 고용과

1) Philip L. Cochran(2007)

같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줄이는 기업의 임원은 정부의 기능을 대신 하게 되어 기업 임원이 공무원(civil servant)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기업은 자선 행위를 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사회적 책임의 명분으로서 이를 합리화할 수 없으며,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노동자 또는 주주 이익의 희생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James Arnt Aune는 “How to Read Milton Friedma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oday’s Capitalism”에서 프리드만의 현실주의적, 이익중심적 기업에 대한 가정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다.<sup>2)</sup>

지금 세계의 국제적 흐름을 살펴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투자 문제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 규범화로 이행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학계의 논의에 더하여, 최근 들어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사회책임투자에 관한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협약이나 표준이 논의되고 있다. 즉, UN의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와 CSR의 국제 표준인 ISO26000을 들 수 있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Our Common Future” 발간, 1992년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컨퍼런스,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는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기업의 CSR과 금융기관의 SRI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CSR과 SRI의 개념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내외 동향을 파악한 다음,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CSR과 SRI의 개념 및 필요성

CSR이란 기업 경영에 있어 사회 및 환경 문제를 균형있게 고려한 기업의 경영상 책무이고, SRI는 CSR을 잘 수행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투자자를 위한 수탁자의 책무를 다하는 투자라고 할 수 있다.

CSR은 지난 몇십년 동안 복잡다양한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으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CSR에 대한

2) James Arnt Aune(2007)

표준화(ISO26000)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학술적으로 CSR의 이론적 기초는 경영자가 주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진다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CSR은 기업 경영시 경제적 성장, 사회적 책임 및 환경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CSR의 형태는 기업의 자선행위로 즉각적인 기업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였으나, 이후 1950~60년대 사이 미국의 시민운동, 환경운동, 소비운동 등 새로운 행동주의 운동과 1960년~70년대 초반의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다양한 행동주의 그룹이 언론과 기타 압력을 기업에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기업은 상품, 정책 등을 변화시켜 대응하게 되었다.<sup>3)</sup>

SD와 CSR의 관계와 관련하여 기업의 활동은 사회에 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사회발전은 다시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게 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CSR은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목적은 내재적으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업은 사회와 기업 모두에 이익을 주는 자선행위 영역을 넘어서 기업 전략을 이용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sup>4)</sup>

SRI는 CSR을 잘 수행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기법이다. 즉, 투자결정시 기업의 재무적 수익 이외에 ESG 요소 등 기업의 장기 존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관련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진보적 투자방식으로, SRI의 유형은 크게 사회적 선별 투자(screening),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dvocacy) 그리고 저소득지역이나 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공동체 투자(community investment)로 구분된다.<sup>5)</sup>

과거 SRI는 종교계를 중심으로 군수물자, 담배, 주류 등 반사회적, 윤리 및 환경에 반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

3) William Frederick(1978)

4) Porter & Kramer(2002)

5) 사회적 선별투자는 재무성과 자체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주주, 소비자, 종업원, 지역사회와 환경 등 관련 사항을 평가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negative screening과 positive screening으로 구분됨. negative screening은 무기, 주류, 유해물 제조 등 사회적 책임을 위반하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투자방식인 반면 positive screening은 지속가능경영에 충실한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방식임. 주주행동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 문제에 대해 주주로서 대화를 요구하거나 의결권과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경영을 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주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 지역사회투자는 소수인종과 저소득층 등 주류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과 투자임

지만, 1990년대에는 사회·윤리·환경(Social, Ethical, Environment)을 기준으로 하는 투자가 강조되었으나, 2002년 엔론, 월드콤 등의 회계 관련 부정 사건이 터지면서 지배구조가 윤리를 대체하였다. SRI에 대하여 UN은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측면을 고려한 투자로 인식하는 바, SRI는 기존 “사회에 대한 책임”에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에 투자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이익극대화를 위한 투자 패러다임 중심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으로 바뀌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탁자의 책무를 강조하여 의도적으로 UN을 중심으로 SRI에서 S(Social)를 제외하고 RI(Responsible Investment)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CSR과 SRI의 필요성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유에서이다. 즉 CSR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SRI는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데, CSR과 SRI를 통해 주주와 투자자 효용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이 직면한 환경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데, 2005년 2월부터 교토의정서(온실 가스 규제 협약)가 발효되었고, 기업의 친환경성을 증시하는 녹색소비자(green consumer)가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상품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UN Global Compact의 10대 기본원칙, GRI의 가이드 라인 등 CSR에 대한 국제적 표준이 제정되고, 국제 표준화기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ISO 26000)이 향후 1~2년 내에 제정·공포될 예정이므로 CSR은 기업의 선택 문제라기보다는 필수적 요구사항이 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나이키의 아동 고용, 2000년대 엔론과 월드콤의 분식 회계, 2001년 소니사의 네덜란드 세관에서 겪었던 유해물질 검출 사건 등 기업이 CSR을 소홀히 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등장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 기업의 책임은 주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에 한정되었으나, 최근 들어 기업의 윤리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주주 이익의 극대화에서 이해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이 투자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책임금융(Socially Responsible Finance: SRF)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 및 가치 평가에서 CSR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Ⅲ. CSR과 SRI의 국내외 동향

#### 1. 국제 동향

UN은 CSR을 진전시키려는 노력으로 기업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기업들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영역에서 10개의 원칙을 채택·준수하는데 주도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요구하는 ‘The Global Compact’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점차적으로 전세계에서 인지도가 높아지며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sup>6)</sup> 또한 ISO26000을 통하여 CSR에 대한 국제 표준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SRI와 관련하여 UNEP/FI와 글로벌 콤팩트의 주도 하에 2005년 4월부터 2006년 1월에 걸쳐 금융기관을 위한 “책임투자원칙(PRI: 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가 제정되었다. UN PRI는 6개 원칙, 33개 세부 실천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 의사결정시 ESG이슈 반영, 투자대상기업의 ESG이슈 정보 공개 요구, PRI의 충실한 이행 및 이에 대한 세부 활동과 진행 사항 보고, PRI 원칙의 이행에 있어서 효과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투자자를 위한 수탁자 책무와 투자를 통한 바람직한 사회 발전 추구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국제적인 SRI의 원칙뿐만 아니라 개별 선진금융기관에서도 자체적인 RI(Responsible Investment) 방침을 보유하고 있다. CPP(Canada Pension Plan), Schroder, JPMorgan Chase, Hermes 등에서는 환경 및 사회적 이슈의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 의사 결정의 요소로 고려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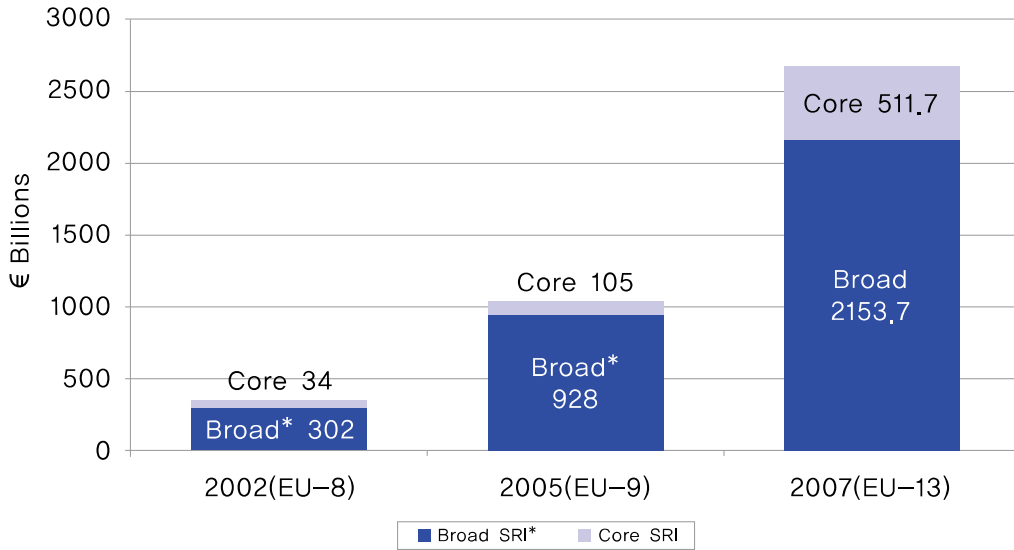
전 세계 SRI의 규모는 2008년 9월 기준 약 5조 유로 달러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유럽이 약 53%, 미국이 39%, 나머지 국가가 약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대부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본격화 되면서 SRI가 급속히 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럽 시장의 경우, 2007년 말 핵심 SRI(Core SRI) 규모는 5,117억 유로이며, 넓은 의미의 SRI(Broad SRI) 규모는 2조 유로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며<sup>8)</sup>,

6) 2007년 8월 25일 기준 글로벌 콤팩트는 전 세계 116개국에서 4500개의 기업과 단체가 여기에 가입해 있다. 기준 전세계 국가별 가입 현황을 보면 스페인(458), 미국(171), 이탈리아(150), 중국(117), 인도(86), 한국(76), 일본(56), 캐나다(41), 프랑스(39), 영국(27) 등임

7) 노회진 외 13인(2006)

2002~2007년간 SRI시장의 연평균성장률(CAGR)도 42%로 동기간 MSCI Europe의 성장률 7.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002~2007년 유럽 SRI 시장규모 추이

미국시장의 경우 2007년 말 전체자산 중 사회책임투자 관련 투자규모는 2조 7천억 달러로 1995년도의 6천4백억 달러에 비하여 약 4.2배 성장하였으며, 전체 미국시장 투자규모 25.1조 달러의 11%가 SRI로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RI시장을 세분화하면 Social Screening (74.6%), Shareholder advocacy (24.5%), Community Investing(1%) 방식으로 투자되고 있다. 특히, 뮤추얼펀드, ETF, 폐쇄형 펀드 기타 집합투자기구 등 모든 유형의 SRI 펀드 규모는 2005년 1,790억 달러에서 2007년 약 2천억 달러로 13% 증가하였다.

8) Core SRI는 담배, 무기 등 부정적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을 제외하고, 환경/윤리 등 사회책임 분야에 부합하고 선도하는 기업을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SRI를 의미하며, Broad SRI는 Core SRI에 더하여 OECD, UN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포함, 부정적 기준 어느 한 가지만 제외한 펀드도 모두 포함하는 등 보다 광범위한 의미의 SRI를 뜻함

〈표〉 미국 SRI 시장규모

(단위: 십억 달러)

구분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Social Screening	162	529	1,497	2,010	2,143	1,685	2,098
Shareholder Advocacy	473	736	922	897	448	703	739
Screening and Shareholder	N/A	(84)	(265)	(592)	(441)	(117)	(151)
Community Investing	4	4	5	8	14	20	26
합계	639	1,185	2,159	2,323	2,164	2,290	2,711

주: 1) screening과 shareholder advocacy를 동시에 쓴 자산은 이중 계산을 막기 위해 차감함  
 자료: SIF(2008)

〈표〉 미국 사회책임투자 관련 펀드 현황

(단위: 십억 달러)

구분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펀드수	55	144	168	181	200	201	260
자산규모	12	96	154	136	151	179	202

자료: SIF(2008)

이외 호주의 SRI 시장규모는 2005년 말 135억 호주달러에서 2007년 말 722억 호주달러로 급성장하였으며, 일본은 2005년 말 SRI 시장규모가 약1,400억 엔에서 2007년 말 8,400억 엔으로 1999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캐나다 SRI시장은 2002년 말 514억 캐나다달러에서 2007년 5,036억 캐나다달러 규모로 약 10배가량 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 2. 국내 동향

우리나라의 CSR은 1995년~ 2002년 사이의 CSR 본격 도입 시기를 지나 2003년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보고서가 발간되고 환경 및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노조, 시민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CSR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산자부는 2006년 10월 기업의 지속가능성(경제, 환경, 사회)을 통한 경쟁력 확충의 일환으로 '지속가능 보고서 가이드 라인(Best Sustainability Report Guidelines: BSR)의 세부지표를 개발하였다. 거래소 SRI 지수를 하반기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상장회사가 이러한 지수를 산정하는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증진, 기업명성의 향상 등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다. 향후 상장 기업은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을 통하여 CSR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유인이 점차 커지도 있다.

2009년 4월 말 기준 국내 공모 SRI 펀드는 총 32개로 약 7,557억원 규모이며, 2009년 3월 기준 국민연금은 6,600억원을 SRI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국내 SRI 투자 규모는 총 1조 4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표〉 국내 SRI 규모

(단위: 개, 억원)

구 분		ESG	지배	환경	합계
국내투자 SRI	펀드수	13	3	-	16
	펀드규모	2,364	1,366	-	3,730
해외투자 SRI	펀드수	3	-	13	16
	펀드규모	50	-	3,778	3,828
합계	펀드수	16	3	13	32
	펀드규모	2,414	1,366	3,778	7,557

그러나 국내 SRI펀드는 업종 대표주와 우량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다른 우량주 펀드와 크게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sup>9)</sup>, SRI펀드의 보유종목이 대형주 위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SRI펀드와 일반 주식형액티브 펀드의 수익률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SRI펀드의 역사가 짧고 아직 벤치마크도 없어 제반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고 해외 시장에 비해 명확한 투자기준이 부재하고 투자방식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SRI펀드가 다른 성장형 펀드의 포트폴리오와 차별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

9) 대신증권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SRI펀드 포트폴리오의 대형주 편입 비중은 2006년 이후 평균 77.3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가능성 수준이나 성장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기존의 재무제표 이외에 환경 및 지속가능보고서와 같은 SRI 관련 정보의 공개를 기피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는 국제 기준에 맞는 공식적인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양식의 보급이 미흡하고 지속가능 관련 국내 대표 지수도 없는 실정이다.

## IV. CSR과 SRI의 발전 방안

기업의 CSR은 기업 지속가능성의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행위준칙’이며,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수익의 달성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요소이고, SRI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내지는 사회책임경영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투자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CSR과 SRI가 상호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도입하여 기업, 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상호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 1. CSR의 발전 방안

첫째, CSR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최고경영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화가 진전되고 기업 정보가 신속히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윤리가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업의 CEO는 CSR을 통한 윤리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윤리 경영이 경쟁력의 원천임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의 CSR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즉, 기업 윤리 강령 및 실천 매뉴얼, 기업윤리강령 전문가 및 전문기관, 기업윤리강령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의 확립, 윤리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의 CSR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CSR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CSR은 일차적으로 기업의 문제이나 CSR의 정착 여부가 최종적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CSR과 기업의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 CSR 확산을 위해 국제표준의 도입

및 관련 법규를 정비하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CSR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및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 감독이 필요하다.

## 2. SRI의 발전 방안

첫째, SRI에 관한 명확한 개념의 인식이 필요하다. SRI는 사회운동의 성격을 넘어서는 투자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책임투자 추진과정에 있어 사회운동으로 SRI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탁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투자기법으로서의 SRI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SRI의 투자를 위해서는 기업의 ESG 요소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은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을 통해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ESG요소를 고려한 리서치 정보 요구, 자산관리자는 투자의 사결정에 ESG리서치 정보 통합시키고 더 나은 리서치 정보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SRI의 투자성과를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를 증권거래소 또는 자산운용사 등의 주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이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SRI의 실적 평가에 있어서 주요한 잣대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공신력있는 지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투자분석 기관의 분석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 Innovest Strategic Value Advisors(미국), Sustainable Asset Management(스위스)와 같은 전문적 ESG 관련 투자분석 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ESG분석에 대한 장기적 목표 설정하고, 애널리스트에 대한 트레이닝과 적절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산운용회사는 사회책임투자 방침과 프로세스, 시스템, 인력 개발 등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ESG 이슈에 대한 리서치를 강화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SRI 펀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 대상을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운용회사들이 투자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업에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SRI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CSR을 촉구하는 방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증권거래소,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등은 UN Global Compact이나 UNEP/Finance Initiative에 가입 또는 교류를 강화하여, SRI 투자에 대한 해외 조류를 국내에 전파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

일곱째, SRI를 통한 CSR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은행 등 기업에 대한 중장기 익스포저를 보유하는 금융기관은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자체적인 평가모델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는 연기금과 관련된 투자 의사 결정시 ESG 사항 고려 여부 및 정도를 공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기금 등의 투자에 SRI 원칙을 이용함으로써 시장을 교란 시키지 않고 기업을 올바른 방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향후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에서 사회책임투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존의 SRI투자가 다른 대안적 투자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더 나은 위험대비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연금 등은 공적 연금에서 할당되는 SRI 운용 실적에 대한 평가를 장기적 관점에서 행할 필요가 있다.